

# 강한 경제 전주 기여 '상생발전기업' 모집

### 7~14일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3개 분야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강한 경제' 전주를 구현하는 데 앞장선 상생발전기업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3개 분야별로 각각 1개의 '2024년 전주 상생발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3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전주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모집대상은 전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1500만 원의 경영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교부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

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력산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6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7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정량평가를 거쳐 지역경제 파급효과, 근로자 진화 근무환경 실태 등을 평가한 뒤 11월 중 우수 상생발전기업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물품 구입에 힘써온 업체들을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삼아, 지역기업들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상생발전기업은 현재 △(주)테크카본 △(주)준건설 △대자인병원 △(주)한실어패럴 △(주)금강유리 △전주병원 △(주)대경산전 △(주)발해 △전주다솔아동병원 △(주)강동오케이 △(주)제이앤지 △(주)나우리 등 12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김옥기기자



서신동 제1회 '우리동네 페스타' 축제가 (주)이마트전주점 야외주차장에서 열렸다.

## 서신동 '우리동네 페스타' 성료

### 다양한 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로 주민 활발한 참여 촉진

서신동 제1회 '우리동네 페스타' 축제가 (주)이마트전주점 야외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2019년 마지막 동민의 날 행사 이후 5년 만에 '우리동네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통해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치킨, 떡볶이, 양꼬치 등 다양하고 푸짐한 음식을 선보였고, 지역 자활센터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이마트는 리퍼브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였다.

또한, 서신동과 결연을 맺은 진안 마령면에서도 참여하여 지역 농산품을 판매했으며, 원광보건대에서는 CPR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동민들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주민 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의 공연과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황태현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은성 서신동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대학가 범죄 예방 환경 개선·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 전주시의회, 전주소재 대학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위한 토론회 가져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최주만, 최서연 의원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전주시 대학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대학가 치안 문제의식', '대학가 주변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효과적 적용방안' 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주 팀장, 전북대학교 이정찬 부총학생회장, 전주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김영규 팀장, 전주시의회

최지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자율방범대가 참여해 대학로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취약한 원룸 밀집 지역 등 대학가 주변에 적합한 범죄 예방 환경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서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시스템과 대책 시행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최주만, 최서연 의원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전주시 대학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설공단, 기술 봉사로 이웃 사랑 실천

### 사랑나눔기술봉사단, 소외계층 2가구 주거 환경 개선 봉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직원들의 직무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공단은 '사랑나눔기술봉사단' 소속 기술직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덕진구 팔복동 지역의 소외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기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직원들은 각 세대의 고장난 노후 등 기구를 교체하고, 외부등을 설치했으며, 누전이 열려있는 전기 배선을 정리하고 오래된 누전 차단기를 교체했다.

또 주민들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시설들을 보수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 활동은 전기와 전자, 기계, 건축 등 기술직 직원들의 고유 기술을 십분 활용한 기술 봉사로 소외계층 이웃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재원은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공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술 봉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직원들로 '사랑나눔기술봉사단'을 꾸리고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각 부서별로 부서 특성에 맞는



전주시설공단 '사랑나눔기술봉사단' 단원들이 고유 기술을 활용한 기술 봉사를 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권을 그려주는 주차운영부가 대표적이다.

사랑나눔기술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

는 이정주 월드컵운영부장은 "지역사회 공헌은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전주시는 제76주년 국군의 날과 제436주년 개천절, 578돌 한글날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군의 날 전날인 3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시내 주요도로 41개 구간에 6500여 기의 가로기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과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전주시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법을 안내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가정과 기업, 단체에서는 오는 국군의 날(10월 1일)과 개천절(10월 3

일), 한글날(10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또,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속해 게양해도 된다.

단, 태극기는 심한 비·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게양하지 않아야 하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태극기를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중 국경일 및 기념일이 가장 많은 10월 전주시 전 지역에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kosca35.or.kr



회장 임근홍

### 도전과 개혁의 역사!

##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2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 장	임 근 홍	(유)유림건설	박 찬 용	(유)성지도건	김 진 호	(유)대안건설
부 회 장	김 동 수	(유)도곡건설	유 흥 중	(주)누리토건	김 대 식	아라온(주)
감 사	이 선 한	(유)금정건설	강 훈 희	(유)대가건설	방 한 웅	(유)도암건설
운영위원	강 상 원	(유)반석	김 용 배	(주)천우에스엔씨	오 성 권	(유)세정건설
	김 만 성	(유)보성건설	안 길 환	(유)우정건설	임 완 택	(유)석금
	신 현 철	(유)서영건설	임 성 룡	(유)가인산업	전 성 배	(유)아일건설
	윤 현 철	(주)한성개발	장 철 성	(유)하늘채건설	홍 동 남	(유)정우건설
	임 찬 희	(유)모두건설	최 영 재	(유)성주건설		
	조 성 호	(주)일성건설				